

##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을 주제로 행사가 한창인 상하이 엑스포.

오전 8시 행사장 입구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려 겨우 입장한 엑스포장. 이번 엑스포에 참가한 국가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꼽히는 한국관 입구는 관람객 행렬이 길게 꼬이리틀고 있다. 기다리는데 3시간, 산 넘어 산이다. 상하이 엑스포를 하루에 관람하기란 한마디로 ‘불가능’이다.

한국관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글이 새겨진 단청 아트 타일 3만 8,000여 장으로 외벽을 장식했고,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4만 2,000개를 밝혀 멋진 야경을 연출한다. 한국기업관도 ‘녹색 도시, 녹색 생활’을 주제로 상모 돌리기와 역동적 춤사위를 컨셉으로 외관을 꾸몄다. 내부는 최첨단 4D 영상물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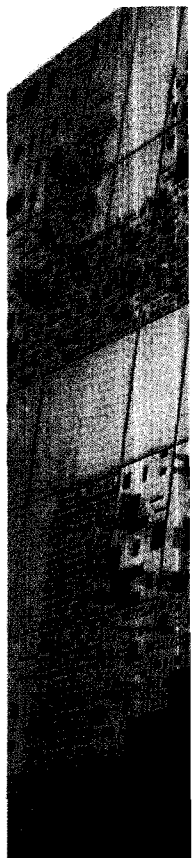
한국관을 찾은 5월 28일, 한국관은 ‘한국주간’(5.26~30, 5일간)을 맞아 중앙국악관현악단의 국악공연과 경기도립무용단의

전통공연과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 격파시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대대적인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Your Friend, Korea(당신의 친구, 코리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한국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터치스크린, 초대형 3D TV 등 첨단 IT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길게 늘어진 기다림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옛날 엽전과 LED로 제작한 나무도 눈길을 끌었다.

배를 타고 황푸강 건너 푸서지구에 있는 한국기업관도 인기만점. 부지면적 3,000㎡, 연면적 4,012㎡, 최고높이 19.8m로 건물은 3층으로 구성됐다. ‘녹색 도시, 녹색 생활(Green City, Green Life)’을 주제로 한 기업관은 그린 스파이럴(Green Spiral)에서 착안한 독특한 건물 외관은 기업과 사람, 도시와 자연을 엮어주는 물결이 건물 전체를 유연하게 휘감는 형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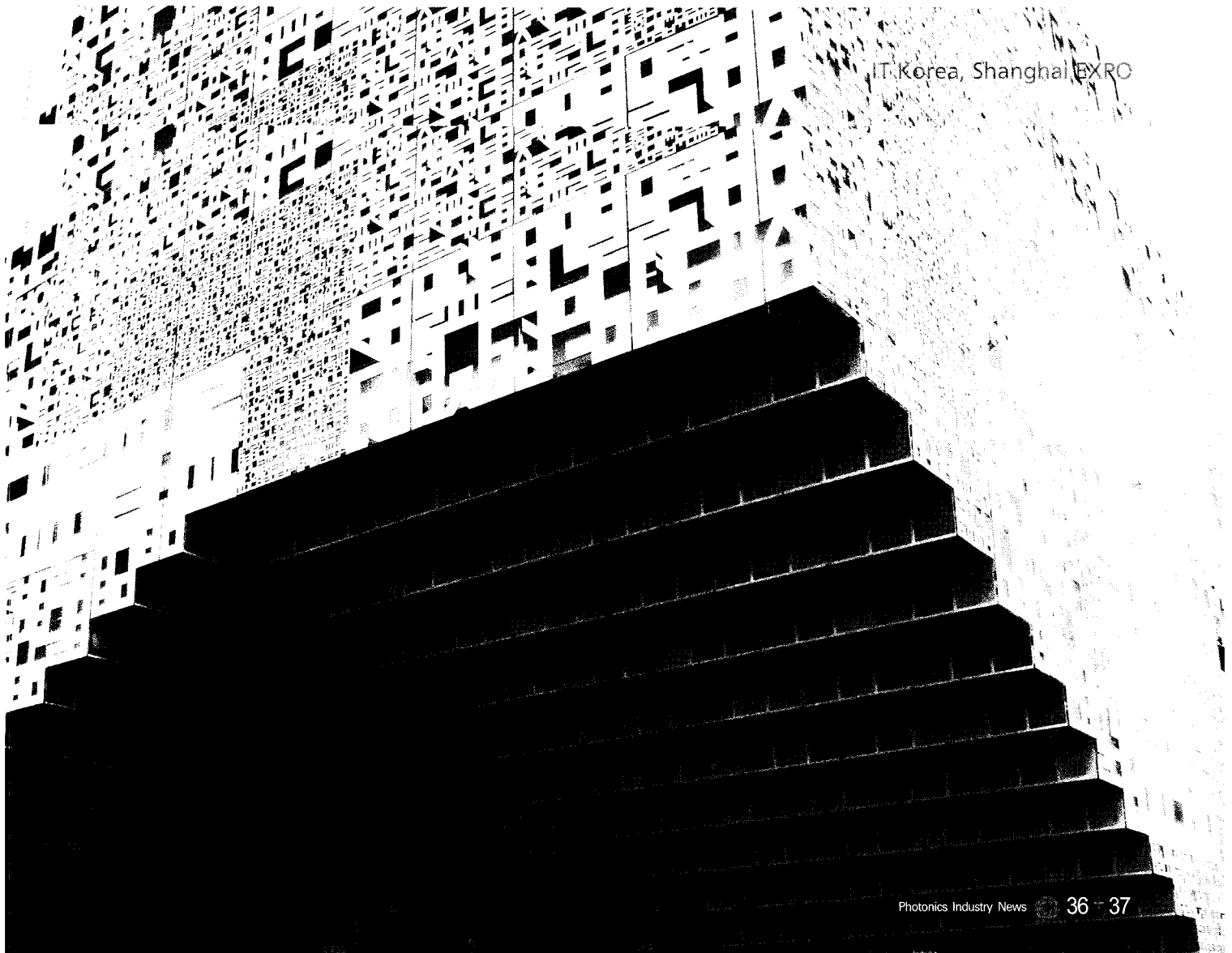
한국기업관에는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전자, 신세계 이마트,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자동차그룹, 효성, LG, SK텔레콤, STX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IT Korea, IT코리아, 상하이엑스포 '인기몰이'

# Shanghai EXPO

- 한국관 · 한국기업관 관람객 북새통, 미디어타워 '눈길'
- 참가국 최신기술 선보여 ... 국가관은 건축디자인 경연장



먼저 기업관 1층에 들어서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3층으로 오르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모니터를 통해 문화적인 소스를 이용하여 기업이미지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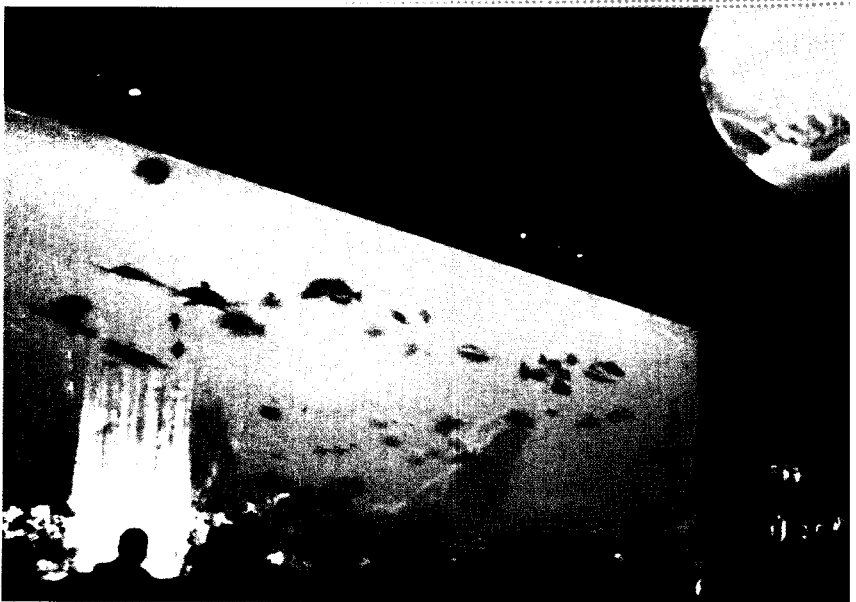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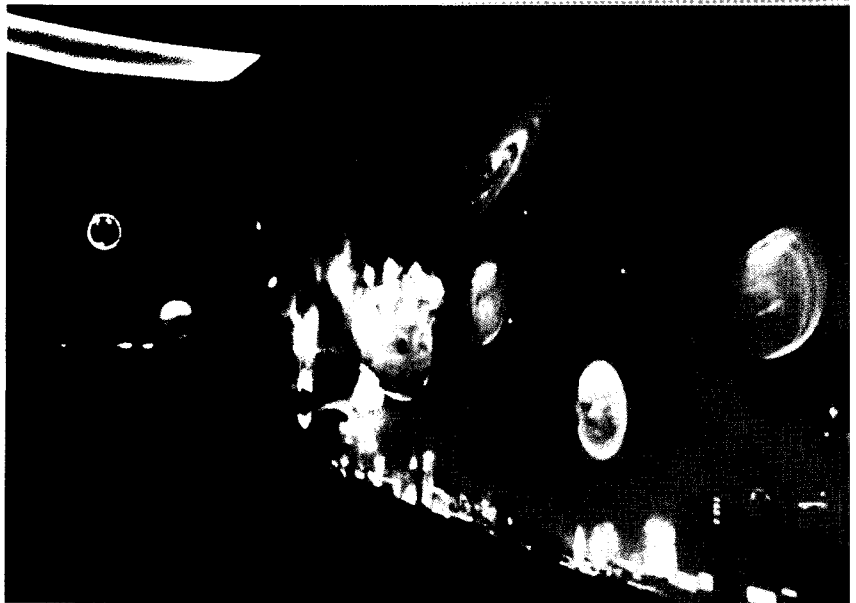
특히, 나선형 모양으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중앙에는 192개의 모니터를 이용한 초대형 '멀티미디어 타워(높이 6.5m, 지름 4.8m)'가 눈길을 끈다. 한국기업관의 랜드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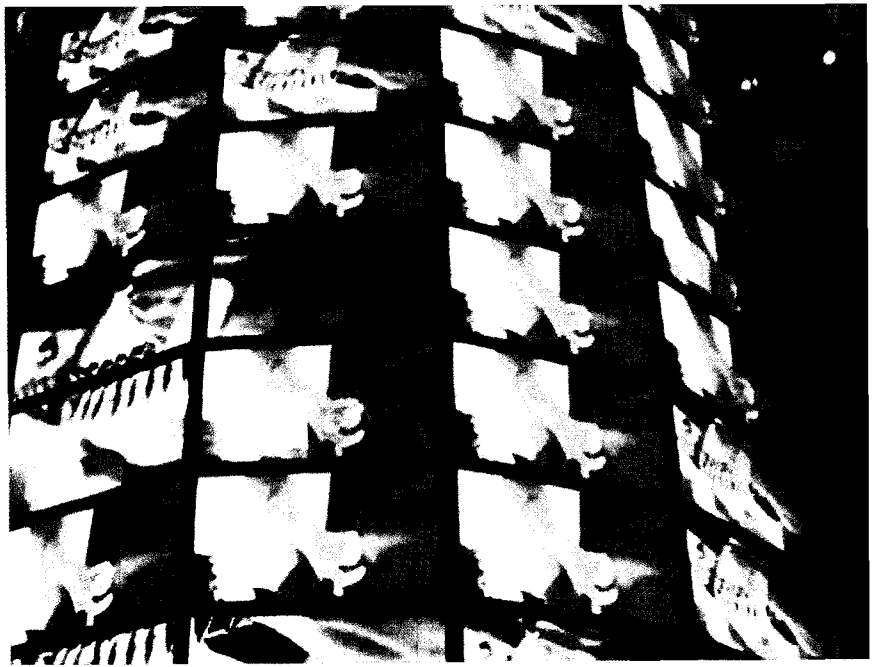
총 192개의 LCD모니터는 한국의 12개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보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영상물이 상영된다. 192개의 모니터는 엑스포 참가국(192개국) 수와 같다. 이 밖에 포스코와 두산은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참가국 국가관의 건축디자인도 백미로 꼽힌다. 한국관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한국관을 비롯하여 일본관은 '마음의 화합, 기술의 화합'을 주제로 '자주색의 누에섬'을 형상화했다. 24m 높이의 건물에 움푹 파인 부분과 촉각을 만들어 생명체의 입, 코, 귀, 손가락을 표현했다.

석유관은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국영 페트로차이나의 기업관. 석유관과 가스관으로 외관을 둘러쌌다. 초대형 LED 스크린에 이들의 컨셉을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 '동방의 관'이라는 중국관, 뿔뿔이 떨어지게 하는 덴마크관, 옥상에 녹지를 조성한 스위스관, 외관을 그물 형태의 천을 씌워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낸 독일관 등이 눈길을 붙잡는다. 영국은 20m 길이의 아크릴 피복을 입힌 입방형 골조 6만 개를 외벽에 설치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인상의 특이한 건축을 선보였다. 이 밖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등 각국의 국가관도 전통문화를 반영한 건축디자인을 선보였다.





## IT Korea, Shanghai EXPO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빅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는 경제·과학·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첫 행사인 '만국 공업 박람회(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Industry of all Nations)'는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렸다고 한다. 당시 박람회에는 25개국 1만 3,000여 전시물이 출품됐으며, 60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당시 출품된 증기기관차와 방적기가 첫 선을 보였다. 이들은 인류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가 엑스포에 처음 참가한 것은 1893년 시카고 엑스포. 8칸의 기와집에 도자기, 부채, 활, 가마 등을 전시했다고 한다. 1900년 파리 엑스포에 참가한 이후 식민지시대와 6·25전쟁 등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1962년 미국 시애틀 엑스포 참가 이후 올해까지 18차례 참가했다. 1993년 8월에는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 국내 200여개 기업이 참가한 대전 엑스포를 주최하기도 했다. 오는 2012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에서 한국관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